

I. 음운

자음 체계

조음 방법		조음 위치	양순음	치조음	경구개음	연구개음	후음
파열음	평음(예사소리)		ㅂ	ㄷ		ㄱ	
	경음(된소리)		ㅃ	ㄸ		ㄲ	
	격음(거센소리)		ㅍ	ㅌ		ㅋ	
파찰음	평음				ㅈ		
	경음				ㅉ		
	격음				ㅊ		
마찰음	평음			ㅅ			ㅇ
	경음			ㅆ			
비음			ㅁ	ㄴ		ㅇ	
유음				ㄹ			

단모음 체계

혀의 앞뒤		전설 모음		후설 모음	
혀의 높낮이	입술 모양	평순 모음	원순 모음	평순 모음	원순 모음
	고모음		ㅣ	ㅜ	ㅡ
중모음		ㅔ	ㅝ	ㅑ	ㅛ
저모음		ㅞ		ㅓ	

음운 변동

교체

- 음절의 끝소리 규칙
- 비음화(ㄹ의 비음화→비음동화 순서로 일어난다)
 - 비음동화
 - ㄹ의 비음화
- 유음화
- 된소리되기
- 구개음화

탈락

- 자음군 단순화
- ㄹ 탈락: 규칙 활용에 해당함
- ㅎ 탈락
- ㅡ 탈락: 규칙 활용에 해당함 (예외는 있음)
- ㅏ, ㅑ 탈락

첨가

- ㄴ 첨가
- (○ 반모음 첨가: 논란의 여지가 있음)

축약

- 거센소리되기
- (○ 모음 축약: 논란의 여지가 있음)

II. 단어

품사

체언

- 명사
 - 의존 명사의 경우도 자립 형태소
- 대명사: 지시대명사, 인칭대명사
 - 인칭대명사 중 미지칭(지시 대상 있음, 그러나 지시 대상을 모름), 부정칭(지시 대상이 정해지지 않음, 보통 보조사가 붙으면 부정칭), 재귀칭은 3인칭
- 수사
 - 수 관형사와의 구분: 조사와 결합할 수 있음, 뒤에 단위성 의존 명사가 음.

수식언

- 관형사: 조사가 붙지 않는다. 불변어이다.
- 부사: 보조사가 붙을 수 있다. 불변어이다.

용언

- 활용을 합: 규칙 활용('ㄹ 탈락, - 탈락')과 불규칙 활용(나머지)*
- 동사
 - 어간+(선어말 어미: 없을 수도)+어말 어미(종결 어미, 연결 어미, 전성 어미)
 - 선어말 어미: (주체) 높임, 시제 등을 나타냄 (중세 국어에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존재)
 - 전성 어미: 다른 품사의 기능(문장 성분)을 수행하게 하나, 품사를 바꾸지는 않음
 - 파생 명사와 명사형의 구분: 수식어를 붙여 본다. (관형어의 수식/부사어의 수식)
- 형용사
 -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: 절대적인 기준이 없음.
 - 기타 지엽적인 소재: 관형사 '다른'과 형용사 '다른'의 구분, 동사 '있다'와 형용사 '있다'의 구분 등등 '품사의 통용'에 관해 문제가 출제됨

, 가

'중'

관계언

- 조사
- 격 조사: 문장 성분을 나타냄. ‘에서(단체)’의 경우 주격 조사, ‘에서(장소)’의 경우 부사격 조사. 보격 조사의 경우 ‘이/가’ 뒤에 ‘되다, 아니다’가 와야 함.
- 서술격 조사 ‘이다’의 경우 가변어에 해당함 (이를 어간, 어미로 분석하는 견해가 있음)
- 보조사
- 접속 조사
- 와/과: 접속 조사로도 쓰이고, 부사격 조사로도 쓰임.

형태소

자립성 유무 의미의 성격	자립 형태소	의존 형태소
실질 형태소	나머지	어간
형식 형태소		어미, 조사, 접사

단어의 분류

단일어	
*복합어	합성어: 어근+어근
	파생어: 어근+접(미)사/접(두)사+어든

*직접 구성 요소 분석: 2017학년도 9월 모의평가 참조

합성어

비통사적 합성어, 통사적 합성어

- 조사의 생략은 통사적
- 부사가 용언을 꾸미는 것은 일반적이거나, 부사가 체언을 꾸미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.
- 용언의 어간은 어미(연결어미: -아-, -어-, -게-, -지-, -고-) 없이 다른 용언의 어간과 결합하거나, 어미(관형사형 전성어미, -(으)ㄴ-, -는-, -던-, -(으)ㄴ) 없이 체언과 결합할 수 없다. 그러한 결합은 일반적이지 않다.

파생어

접사

○ 접두사

-지엽: 접두사도 품사를 바꾸는 경우가 있음(메마르다, 강마르다, 솟되다, 엇되다)

○ 접미사

-명사 파생 접미사, 동사 파생 접미사, 형용사 파생 접미사, 부사 파생 접미사

: 품사를 바꾼

-피동사 파생 접사(이히리기), 사동사 파생 접사(이히리기우구추)도 해당

III. 문장

성분의 분류

주성분	주어, 목적어, 보어, 서술어
부속 성분	관형어, 부사어
독립 성분	독립어

성분

*격조사, 용언의 전성 어미, 파생 접미사 등에 의해 결정된다. 또한 하나의 절이 하나의 문장 성분으로 기능할 수 있다(안긴문장)

주성분
○ 주어 -주어가 두 개인 것처럼 보이는 문장은 <u>서술절을 안은문장</u>
○ 목적어
○ 보어: ('되다/아니다' 앞의 체언)+보격 조사(이/가)
○ 서술어 -용언이 2개여도 보조 용언은 없을 수 있음* -한글 맞춤법 제 47항: 보조 용언은 띄어 쓰을 원칙으로 하되, 경우에 따라 붙여 쓰도 허용한다/ 다만, 반드시 띄어 쓰는 경우도 있음 -서술어의 자릿수: 뜻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부속 성분
○ 관형어: 실현 형태가 다양함 -일부 체언의 경우도 관형격 조사가 생략된 것으로 간주하여 관형어로 볼 수 있다.
○ 부사어

독립 성분
○ 독립어

* ' - / - '

' '

문장의 구조

홀문장	
겹문장	안은문장: 절을 가진 문장
	*이어진문장:(대등적/종속적) <u>연결 어미</u> 에 의하여 결합된 문장

*주로 앞뒤 절의 순서를 바꿨을 때 문장의 의미가 바뀌지 않는 경우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, 그렇지 않은 경우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임.

안은문장

- 명사절을 안은문장
 - 명사형 어미: -(으)ㄴ, 기 ✓
- 관형(사)절을 안은문장
 - 관형사형 어미: -(으)ㄴ, -는, -던, -을
 - 동격 관형절과 관계 관형절의 차이를 질문할 수 있음
 - 형용사 하나가 관형절의 역할을 할 수 있음
- 부사절을 안은문장
 - 부사형 전성 어미: -게, -도록 등
 - (부사 파생 접미사:-이; 부사가 서술성을 가지는 예외임)
- 서술절을 안은문장
 - 표지가 따로 없음, 주어가 두 개 있는 것처럼 관찰됨
- 인용절을 안은문장
 - 직접 인용:-라고 등, 간접 인용절: -고

피동, 사동 표현

<의미>

-피동: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게 되는 것(↔ 능동)

-피동 요소: -이-, -히-, -리-, -기-, -되-, -아/어지다

-사동: 주어가 남에게 (다른 사람이)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(↔ 주동)

-사동 요소: -이-, -히-, -리-, -기-, -우-, -구-, -추-, -시키다, -게 하다

-통사적 방법으로 실현된 피동문과 사동문('어/아 지-', '-게 하다' 등)은 접미사에 의한 피동·사동에 비해 통사·의미적 제약이 적다. 파생적 사동문의 경우,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으로 모두 해석이 가능하지만, 통사적 사동문의 경우 간접 사동만 파악된다.

-피동사와 사동사는 목적어 유무로도 구별할 수 있다. 어떤 동사가 피동사나 사동사 중 하나이고, 목적어를 가지지 않는 경우, 그 동사는 피동사이다. 다만 목적어를 가진다고 해서 사동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.

cf) 피동은 동작주를 상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(탈행동적 피동)

높임 표현

<종류>

-주체(→주어) 높임: 선어말 어미 -(으)시-, 주격 조사 께서, 특수 어휘*

1)직접 높임

2)간접 높임: 주어의 신체 일부, 소유물, 생각 등을 높임

-상대 높임: 종결 어미

3)객체(→목적어/부사어) 높임: 특수 어휘, 부사격 조사 '께'**

*특수 어휘를 사용했다는 말은, 선어말 어미 -(으)시-가 결합된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분석되지 않는다는 뜻이다. 예를 들어, 계시다의 경우, 계+-시-+-다 등의 형태소 분석은 올바르지 못한 분석이다.

** 중세 국어에서는 객체 높임이 선어말 어미로 실현되었다.